**컨설턴트과의 미팅**

데일리 스크럼은 각자 한일과 할일을 정리하는 정도하고있었다.

대용:

비쥬얼라이징 끝, 4번하면됨

형택

명세서3번 완료, 4번에 행렬 만드는거하고있음

찬영 :

3번 진행중, 아이디어 회의

수현:

그래프 하는거 음식점 위치 까지는 했고 지도 나타내는거 까지하고

행렬 만드는거 진행할려고합니다.

오정:

2번완료, 3번 시작하겠음

선수:

4-1까지는 얼추 완료, 하면서 안되는 부분있으면 말해주고 오늘 상담요청 했던게

컨설턴트님 :

편하게 어느부분을 진행하는지 말하면 된다고함

선수의 외모 칭찬

기획 회의에 관해:

선수 : 아이디어가 2가지로 줄여졌으나 각자의 관심도의 따라 좀더 구체화 하려고 한다.

컨님 :

선수 : 각자 좀더 하고싶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세부적인 틀을 생각하고 미팅하기로함

컨님 : 구체화 되었는지?

선수 : 생각하고 컨님 앞에서 해보자라고 했었음

컨님 : 기본적으로 문서나 정리된것이 있는지?

선수 : <문서 공유>

코로나 서비스 / 웹툰 서비스 로 나뉨

1. 코로나 서비스는 다른 코로나 서비스가 있기때문에, 코로나 인해 우리 기술을 활용하여 사람들이 최대한 밀집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생각해봄

컨님 : 명소추천을 하는데 코로나 관련된기능이 추가되었구나

선수 : 사람들이 특정 명소를 방문하고싶은데 시간대를 예측해서 추천 시간대를 나눠주는 것을 목표로함

컨님 : 이 서비스의 중점은 관광 명소 추천인데, 거기에 코로나 기능이 추가 된것이나? 아니면 코로나 관련된것이 메인인가?

선수 : 코로나 서비스가 메인

찬영 : 명소 추천보다는 코로나가 적은것을 목표로함. 명소 추천은 만약 놀이공원을 가고싶은데, 비슷한 곳을 분포하여 추천

컨님 : 그러면 우리 서비스를 만약에 한줄로 요약한다면?

찬영 : 사람이 없는 곳을 찾아주는 어플리케이션?

컨님 : 방금 문장의 음… 왜?가 부족. 명확한 뭐라는것이 부족한것같다.

코로나만 가지고 사람들이 밀접한 곳을 추천한다는게 약하다.

아직 팀원들사이에서도 명확하게 공유가 되지 않았는가?

찬영님의 아이디어인가?

찬영 : 다같이 낸 아이디어

컨님 : 아직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진 않았는데. 이걸가지고 더 생각할수있는게 많은것 같다.

거짓정보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 인가?

찬영 : 저희 서비스가 생각했던것은 유저들이 어떤 갈곳을 정해놓고 시간대를 입력받아 그것을 토대로 밀집도를 표시하는것인데, 악용하여 밀집도를 높일수있는것을 거짓정보라고 한다.

컨님 : 밀집도를 사람들이 올릴수있는건가?

찬영 : 그렇다

수현 : 사람들이 어느곳을 가고싶다면, 밀집도를 확인한뒤 시간대를 입력하여 추천받으려고하는데, 악용하는 사람들은 간다고 거짓 정보를 입력할수있다.

컨님 : 밀집도를 수집하는 방식이 내가 갔다고 체크? 가겠다고 체크

그러면 앱을 안사용하고 밀집도가 높아질수있지 않을가?

수현 : 유동인구 관련 데이터를 수집해서 해결하려고함

정확도는 좀 떨어질수는 있으나 밀집도를 어느정도 해결할수있을것같다

컨님 : 공공데이터를 활용하겠다라는 거구나. 그러면 사용자들이 가겠어라는 것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것인가? 절대적인 수치는 아닌가? 아직 구체적인것이 아닌거구나? 그러면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방금 문제점을 해결할수있겠구나.

OCR 기능을활용하여 거짓정보를 해결하는것은 아니구나?

선수 : 동시에 여러 정보를 입력하지 못할수있는 것

컨님 : 그러면 회원절차에 들어가는거?

선수 : ㅇㅇ

컨님 : 개인정보 관련하여 회원가입하는것은 다른 기술을 활용해도 됨 (문제 노노)

유동인구 데이터가 필요한거는 어떻게 하면 코로나 서비스의 유동인구가 적은 순서대로 추천해주는것. 그 용도로 사용하는것. 그러면 화면상에 보여주는것은 솔팅 순?

선수 : 그것 뿐만 아니라 유저가 원하는 테마 비슷한 장소를 추천해주는것

컨님 : 비슷한 테마를 추천해주는것에대한 서비스라는것을 이제 이해

어떤 기능은지 와이어프레임을 그려주는게 좋을듯하다

종이에 간단하게 그려서라도 있으면 좋을듯하다

관건은 초기 데이터가 없다. 초기 데이터가 쌓이기 전까지… 공공데이터를 가지고도 어느정도 의미있는 데이터라는 것을 부연시켜서 데이터가 쌓으면서 서비스를 개선할수있다고 진행하면 된다.

선수 : 코로나로 인해 외출이 자제되는 시대이다. 그래서 가고싶은 테마를 가고싶은데 추천해줄수있는 서비스를 만들고싶다.

컨님 : 그러면 2번째는?

형택 : <발표 내용 추가>

교수님께서 한줄 소개를 하라고 해서 내용 추가

서비스에대해서 우리가 이런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다해서 내용 추가

어떻게 서비스의 데이터를 수집할지의 내용 추가

여기저기 웹툰을 모은다는것은 다음, 네이버, 카카오 등 웹툰의 서비스를 모아주는 것

컨님 : 다음, 네이버, 카툰의 웹툰을 가지고 웹툰 포탈을 만들겠다는것?

누르면 행당 웹툰 사이트 페이지로 가는것

그러면 이만화의 선호도를 어떻게 입력 받을려고하는지?

형택 : 저의 서비스에 로그인하면 클릭하면 페이지를 넘어가는데 조회만 한다고해서 로그를 가지고 수집하려고한다.

데이터 수집은 네이버회워의 데이터도 수집하고 우리서비스에서 발생하는것도 수집하려고한다.

컨님 : 웹툰을 보고 실망했을 때 어떻게?

형택 : 웹툰에대해서 알람창을 가지고

컨님 : 정리하자면 꼭 웹툰을 다보지 않았더라도 봤다는 기록이있으면 알람 기능을 통해서 해결할수있구나.

형택 : 문제점이 크게 하나라고 보는데

코로나 - 데이터가 공공데이터로 존재

웹툰 - 더미 데이터를 쌓아야하는지? 크롤링해야하는지? 의견이 대립… 조언 받고싶다.

컨님 : 기술적인 상담은 가능한데…

형택 : 더미 데이터를 쌓고 의미 있는 서비스인지 궁금

컨님 : 다른 서비스에서도 추천서비스라는것이 초반에는 어쩔수없다.

어느정도 규모가 갖추어지면 추천의 정확도가 높아진다.

웹툰이라는 서비스를 수급해서 서비스할수없기때문에 이정도에서 할수있는것도 이해

여러가지 관점에서 추천, 다각도에서 추천할수있는것에 더 고민필요

우리서비스의 좀더 특화된 강점이 있으면 좋겠다.

네이버나 큰 서비스보다 양적으로 뛰어날 순 없지만, 우리는 라이트하게 아이디어를 가지고 서비스를 만드는것이다.

어떤 문제때문에 안좋을것같다에대해선?

형택 : 코로나 서비스는 좀 식상하지 않나…

웹툰은 우리가 웹툰을 제공하지못하는것과 이서비스를 굳이 사용해야하나? 라는 단점

대용 : 웹툰도 우리 서비스만에 특화된 무언가가 없다는것이 문제점

코로나도 유동인구를 가지고 데이터로 사용하는것에대한 한계점

수현 : 처음에는 영화로 생각, 영화관 예매할때 좌석의 개수를 가지고 생각했었는데, 좀더 확장의 개념에서 생각했었음

웹툰은 추천이라는게 더미데이터로 추천하다보니 이게 맞는것이라는 의문점이 생겨 주제로 선정하기에 소극적

우리 도메인이 빅데이터인데 지금 하는것이 빅데이터가 맞나하는 의문점이 듬

컨님 : 빅데이터를 경험하고싶다면, 명세서로 하면 경험을 할수있긴함… 빅데이터를 하는데 주제가 한정적일수밖에 없다. 어느정도 중간점을 찾아야함. 어쨋든 빅데이터가 있다 가정하고 서비스에 중점을 한다면 지금처럼 자유 주제를 하면될것같다.

왜 자유 주제를 했는가?

선수 : 좀더 자유 적으로 하고싶어서

컨님 : 공공 빅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프로젝트를 할때 누군가가 하지않았을까 라는 것은 어쩔수없다. 빅데이터인데 빅데이터를 안해도 되는지는 자유로 하는게 좀더 자유롭게 할수있다. 뭔가 실 사용 서비스를 만들려고 돈을 들여서 데이터를 수집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수 없긴하다…

수현 : 싸피에서 제공해주는 데이터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하려고했는데, 그러면 서비스가 너무 흔한 서비스이지 않을까라는 걱정

컨님 : 남들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드는게 사실 어렵다.

우리가 기획자가 아니고 개발자이기때문에 빅데이터 자체를 뭔가 프로젝트를 해봤다는것

경험을 가지고 이력서에 넣을수있다.

건호코치:

명세서 기반이 아니라 아이디어를 한다고 했을때

코로나 서비스는 공공데이터에서 매일매일 아니면 한달마다 업데이트가 되는 데이터를 가져올곳이 있는지 찾아봤다면 어느정도 예측할수있다. 그리고 실제 사용자 기반으로 데이터를 수집할수있다. 데이터가 계속 계속 추가 될때 자동화되는 미리 해놓으면 프로젝트 진행할때 좀더 원활하게 진행할수있을것같다.

그리고 좀더 사용자 관점에서 생각이 필요한것같다.

영화관에서 출발했다고 했는데, 그 아이디어는 좋다고 생각

웹툰은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은 어려움은 있으나 있으면 좋은것같다.

콘텐츠자체를 분석하는 무언가가 있으면 좋을것같다.

구체화할때는 무언가 컨셉을 가지고 하는것이 좋을것같다. 어떤 서비스를 구체화하던가 어떤거를 명확하게 정해놓고 하는것이 좋을것같다.

컨님 :

코로나 서비스가 영화관에서 시작했다고 했는데, 명소는 좀 뜬그룸 같았는데, 오히려 영화관 이라고 하니깐 좀더 좋게 느껴졌다. 그래서 작은 스콥에서 하는것이 어떠한지. 스콥을 작게해서 명확하게 하는것도 좋을것같다.

꼭 영화관이 아니어도 된다.

뭔가 식상하다가 느끼는것이 너무 범위가 넓어일수도있다. 그래서 좁혀도 좋을듯하다.

그리고 나중에 이력서에 사용하는 주제로써는 웹툰보다는 영화, 코로나가 좋은것같다.

**14:00 미팅**

싸피에서 제공해주는 데이터와 우리가 찾은 데이터에서 가맹점 코드가 일치하는지 확인

카드사 정보를 통해 어떤 가맹점에서 결제했는지 확인 가능

현재 보이는 데이터가 강원도 경기도만 보임

데이터를 보면 시간대에 결제 내용 확인 가능,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누가 결제까지 했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움

각자 데이터를 보고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것인지 내일 발표하기로함

수현 영화관별 밀집도를 보여주고

순위를 보여주거나, 지도에 색으로 보여주면서 모든 영화관을 알려주고 결정을하면 사이트로 예매로 연결해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리고 서브로 카드결제 데이터로 상권을 추천해주는것

과제는 오늘까지 끝낼수있는가?

대용이는 가능할것같다고함